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초등저학년

제 목 행복의 냄새 (1)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우체국에 출근 해서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 이에요. 여름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많이 더운 날에는 얼마나 배란다에 서서 “아빠, 오늘 일하시기 힘들겠다”라고 걱정하세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더운 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비로 다 맞으면서 일을 하신대요. 눈이 내려 길이 꽁꽁 얼어 미끄러운 빙판길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다칠까봐 걱정돼요. 그런데 퇴근하고 오시면 코를 찌르는 발 냄새 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코를 찌푸려요 “으~~ 꼬랑내!” 코를 막으면 아버지는 얼얼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왜 나는지 잘 알아요.

그 냄새는 아버지가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초등저학년(1~3학년)

제 목 행복의 냄새 (2)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땀 냄새와 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냄새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 냄새를 귀수하고 따뜻한 행복의 냄새라고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요. 아버지가 편지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많이 사랑해요.

